

# 四象體質의 形態學的 圖式化를 爲한 研究

許萬會\* · 高炳熙\* · 宋一炳\*

## I. 緒 論

東武 李濟馬가 東醫壽世保元을 著述하여 四象概念에 依據한 體質醫學이 創案된 以來, 諸醫家들에 依해 臨牀的인 研究가 거의 一世紀에 걸쳐 進行되었으나, 四象醫學의 一意的 要素라 할 수 있는 體質辨別에 있어서 諸家가 서로 相異한 辨別方法을 主張하고 있는 故로 實際 臨牀上 많은 問題點을 惹起시키고 있다.

李<sup>1)</sup>는 體質鑑別의 第一法으로 尺度法을 第二法으로 太極鍼法을 提示했고, 權<sup>2)</sup>은 乳上一寸, 乳下一寸, 臍上一寸, 臍下一寸에서의 가로 길이를 재서 體質을 鑑別하는 尺度法을 體診에서 使用하고, 其他, 望診, 問診, 切診을 함께 鑑別 基準으로 使用하고 있다.

朴<sup>3)</sup>은 頭部를 按察하여 軟한가 角이 있는가 前後로 突出했는가 등을 基準으로한 頭部觸診法을 主張하고 있고, 韓<sup>4)</sup>은 顔模形 皮膚 및 食性を 基準으로한 鑑別法을 提示하고 있으며, 朴<sup>5)</sup>은 氣像, 體形, 皮膚, 行步, 脈, 特徵, 音聲, 性質 機能과 嗜好, 平素의 症勢 等 10가지를 基準으로 하는 鑑別法을 提示했고, 洪<sup>6)</sup>은 認定할 만한 客觀的 方法이 없고 다만 經驗과 直觀에 依해서 綜合的으로 判別하는 外에는 다른 方法이 없다 라고 하고, 病證에 依한

鑑別法을 說하고 있으며, 權<sup>7)</sup>은 四體質에 各各 虛病根과 實病根에 依한 I, II 病態가 있어 8體質이 있음을 밝히고, 8體質針法과 8體質診斷脈法을 發表했다.

이들 諸家의 說은 體質辨別의 多樣性 내지는 發展的 解釋의 可能性을 提示하고는 있으나, 客觀性을 缺如하고 있으므로 東武의 基本的 原理를 忘覺한 主觀的 主張들이라고 思料된다.

이에 著者는 東武의 基本的 原理內에서 外形의 體形氣像을 中心으로 客觀的인 形態學的 圖式化를 試圖하였다.

## II. 本 論

- 1) 肺脾肝腎 立於人也 (性命論 p.1)
- 2) 人稟臟理 有四不同  
 肺大而 肝小者 名曰 太陽人  
 肝大而 肺小者 名曰 太陰人  
 脾大而 腎小者 名曰 少陽人  
 腎大而 脾小者 名曰 少陰人 (四端論 p.4)
- 3) 人趨心慾 有四不同 棄禮而 放縱者 名曰 鄙人 棄義而 偷逸者 名曰 懦人 棄智而 飾私者 名曰 薄人 棄仁而 極慾者 名曰 貪人 (上 同)

\*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四象醫學教室

4) 五臟之心 中央之太極也

五臟之肺脾肝腎 四維之 四象也

(四端論 p.4)

5) 太陽人 哀性遠散而 怒情促急 哀性遠散則  
氣注肺而 肺益盛 怒情促急則 氣激肝而肝益  
削 太陽之 臟局 所以 成形於 肺大肝小也

(四端論 p.5)

6) 少陽人 怒性宏抱而 哀情促急 怒性宏抱則  
氣注脾而 脾益盛 哀情促急則 氣激腎而腎益  
削 少陽之臟局 所以 成形於 脾大腎小也

(上 同)

7) 太陰人 喜性廣張而 樂情促急 喜性廣張則  
氣注肝而 肝益盛 樂情促急則 氣激肺而肺益  
削 太陰之臟局 所以 成形於 肝大肺小也

(上 同)

8) 少陰人 樂性深確而 喜情促急 樂性深確則  
氣注腎而 腎益盛 喜情促急則 氣激脾而脾益  
削 少陰之臟局 所以 成形於 腎大脾小也

(上 同)

9) 肺氣 直而伸 脾氣要而包

肝氣 寬而緩 腎氣溫而畜 (上 同)

10) 肺以呼 肝以吸 肝肺者 呼吸氣液之門戶也

脾以納 腎以出 脾腎者 出納水穀之府庫也

(上 同)

11) 哀氣直升 怒氣橫升 喜氣放降 樂氣陷降

哀怒之氣 上升 喜樂之氣 下降

上升之氣 過多則下焦傷

下降之氣 過多則上焦傷 (四端論 p.6)

12) 頭之臑海 神之所舍也

神之爲氣 光明而鑑造化 自有識見

則此句之論 太陽人言而特舉少陰人言者

蓋少陰出太陽而奪其母神故也

肩之臑海 靈之所舍也

靈之爲氣 嚴肅而酷態度 自有威儀

則此句之論 少陽人言而特舉太陰人言者

蓋太陰生少陽而 假其子靈故也

臑之血海 魂之所舍也

魂之爲氣 顯達而奇行裝 自有材幹

則此句之論 太陰人言而特舉少陽人言者

蓋 少陽出太陰而馮其母魂故也

腎之精海 魄之所舍也

魄之爲氣 盛太而壯經營 自有方略

則此句之論 少陰人言而特舉太陽人言者

蓋 太陽生少陰而恃其子魄故也

(性命論 註釋)

13) 類起怒而類伏怒則 腰脇類迫而 類蕩也

腰脇者 肝之所住着處也

腰脇迫蕩不定則肝其不傷乎

乍發喜而乍收喜則 胸腋乍濶而乍狹也

胸腋者 脾之所住着處也

胸腋濶狹不定則脾其不傷乎

忽動哀而忽止哀則 脊曲 忽屈忽伸也

脊曲者 腎之所住着處也

脊曲 屈伸不定則 腎其不傷乎

屢得樂而屢失樂則 背顛暴仰也

背顛者 肺之所住着處也

背顛抑揚不定則 肺其不傷乎 (四端論 p.6)

14) 太陽人 體形氣像 腦顛之起勢盛壯而 腰圍之  
立勢孤弱

少陽人 體形氣像 胸襟之包勢盛壯而 膀胱之  
坐勢孤弱

太陰人 體形氣像 腰圍之立勢盛壯而 腦顛之  
起勢孤弱

少陰人 體形氣像 膀胱之坐勢盛壯而 胸襟之  
包勢孤弱 (四象人 辨證論 p.93)

15) 太陽人 女體形壯實而 肝小腸窄 子宮不足

故不能生產 以六畜玩理而 太陽牝牛馬

體形壯實而亦不生產者 其理可推

(四象人 辨證論 p.94)

16) 少陽人 或有 短小靜雅 外形恰似 少陰人者

觀其病勢寒熱 仔細執證 不可誤作 少陰人治  
(四象人 辨證論 p.94)

- 17) 太陰 少陰人 體形 或 略相彷彿 難辨疑似而  
觀其病證則 必無不辨 (上 同)
- 18) 明知其人而 又 明知其證則應用之藥  
必無可疑 (四象人 辨證論 p.95)
- 19) 人物形容 仔細商量 再三推移 如有迷惑則參  
互病證 明見無疑然後 可以用藥 最不可輕忽  
而一貼藥 誤投重病險證 一貼藥 必殺人.

### Ⅲ. 總括 및 考察

1. 肺脾肝腎은 人事(事務·交遇·黨與·居處)  
와 相符한 것인즉, 이것은 人事에서 基立된 것  
이다.<sup>9)</sup>(材料 1)

여기에서 東武는 人的 四象을 提示하였고 人  
稟臟理에 不同한 四種이 있으니 肺大而肝小者  
를 太陽人 이라 名하고 肝大而肺小者를 太陰人  
이라 名하고, 脾大而腎小者를 少陽人이라 名하  
고 腎大而脾小者를 少陰人이라 名한다.(材料 2)  
라고 四象人의 定義를 내리면서, 人趨心慾에  
不同한 四種이 있음을 附言함으로써, 人稟臟理  
만으로는 不足한 것을 性情面에서 補充하였다.  
(材料 3)

五臟之心은 中央之太極이오 五臟之肺脾肝腎은  
四維之 四象이니라. (材料 4)라고 定義하여  
五臟가운데 心에게 中央의 太極이라는 獨立的  
地位를 附與했고, 肺脾肝腎으로서 太少陰陽의  
臟局長短의 指標로 삼아 四象人을 設定했다.

2. 東武에 依하여 創造된 四象人의 定義에 對  
한 根據를 提示하고, 四象人 辨別에 對한 혼란  
을 避하기 爲한 仔細한 理論을 展開하면서,  
四象人의 臟器에 長短이 생기게 되는 理由를  
다음과 같이 說明하고 있다.

太陽人은 哀性이 遠散하고 怒情이 促急하니  
哀性이 遠散한즉 氣가 肺로 注하여 肺益盛이오  
怒情이 促急한즉 氣가 肝을 激하여 肝益削하나  
니 太陽의 臟局이 그런 所以로 肺大肝小를 形  
成한다.(材料 5).

少陽人은 怒性이 宏抱하고 哀情이 促急하니  
怒性이 宏抱한즉 氣가 脾로 注하여 脾益盛이오.  
哀情이 促急한즉 氣가 腎을 激하여, 腎益削하나  
니, 少陽之臟局이 그런 所以로 脾大腎小를 形  
成한다.(材料 6)

太陰人은 喜性이 廣張하고 樂情이 促急하니  
喜性이 廣張한즉 氣가 肝으로 注하여 肝益盛이  
오 樂情이 促急한즉 氣가 激하여 肺益削하나니,  
太陰의 臟局이 그런 所以로 肝大肺小를 形成한  
다.(材料 7)

少陰人은 樂性이 深確하고 喜情이 促急하니  
樂性이 深確한즉 氣가 腎으로 注하여 腎益盛  
이오. 喜情이 促急한즉 氣가 脾를 激하여 脾益  
削하나니, 少陰의 臟局이 그런 所以로 腎大脾  
小를 形成한다.(材料 8)

以上과 같이 四象人의 形成所以를 밝힌 다음  
理解의 便宜를 爲하여 다음과 같은 補充 說明  
을 加하고 있다.

3. 肺氣는 直而伸이오, 脾氣는 栗而包요. 肝  
氣는 寬而緩이오. 腎氣는 溫而畜이니라.

(材料 9)

肺가 直而伸하는 作用을 하는 것은 呼하기  
爲함이오. 肝이 寬而緩하는 作用을 하는 것은  
吸하기 爲함이다. 그러므로 肝·肺者는 氣液을  
呼吸하는 門戶가 된다. 脾가 栗而包하는 것은  
納하기 爲함이오. 腎이 溫而畜하는 것은 出하  
기 爲함이다. 그러므로 脾腎者는 水穀을 出納  
하는 府庫가 된다.<sup>9)</sup> (材料 10)

以上에서 肺脾肝腎의 作用을 論함으로써 四  
象 體質의 特徵을 理解시키는데에 도움을 주었

다. 繼續하여 哀怒喜樂의 作用을 論함으로써 四象의 特徵을 完全히 理解할 수 있게 하였다.

哀氣는 直升하고 怒氣는 橫升하고 喜氣는 放降하고 樂氣는 陷降한다. 哀怒之氣는 上升하고 喜樂之氣는 下降하니 上升之氣가 過多한즉 下焦가 傷하고, 下降之氣가 過多한즉 上焦가 傷한다.(材料 11)

지금까지 東武가 論說한 것을 總括해보면, 반드시 四象人의 體質鑑別이 容易할 것이고, 또한 形態學的 圖武化가 可能하다고 본다.

4. 다음에서 此를 立證해 보고자 한다. 哀怒之氣는 上升하여 屬陽하므로 哀氣는 直升하여 肺의 本性이 되고, 怒氣는 橫升하여 脾의 本性이 된다. 喜樂之氣는 下降하여 屬陰하므로 喜氣는 放降하여 肝의 本性이 되고, 樂氣는 陷降하여 腎의 本性이 된다.

① 太陽人은 直升하는 哀性이 人의 四象中 肺即 上焦에서 遠散할때, 哀性은 直而伸하는 肺氣 自體와 併合하여 上焦 胃脘部位에서 最大로 擴張된다.(哀性遠散則 氣注肺而肺益盛) 橫升하는 怒情이 促急되어 脾의 納力이 弱小하면 呼吸吸納의 相關關係 때문에 怒情(脾의 納力)의 促急狀態가 肝의 吸力을 弱小하게 만들어 肝益削하게 되므로 肝小가 된다.(怒情促急則氣激肝而 肝益削) 그러면 怒情(脾의 納力)이 促急한 것이 肝益削하게 만드는 理由는 무엇인가.

첫째 東武는 肺以呼 腎以出하고 肝以吸 脾以納하는 相關關係를 提示하여 肺와 腎, 肝과 脾의 相互流通關係를 說明했고,

둘째 性命論註釋(東武自註)에서

太陽生少陰而恃其子魄

太陰生少陽而假其子靈

少陽出太陰而馮其母魂

少陰出太陽而奪其母神하는 理致를 提示했다.

세제, 자주 怒하였다가 자주 怒가 풀어지게 되면 腰脇이 자주 壓迫되었다가는 곧 弛緩하게 될 것인바, 腰脇에는 肝이 附着되어 有은즉, 腰脇의 迫(壓迫). 蕩(弛緩)이 不定할 때에는 肝이 傷하지 않겠는가<sup>11)</sup>. (材料 13)라고, 所住着處하는 部位別로 例示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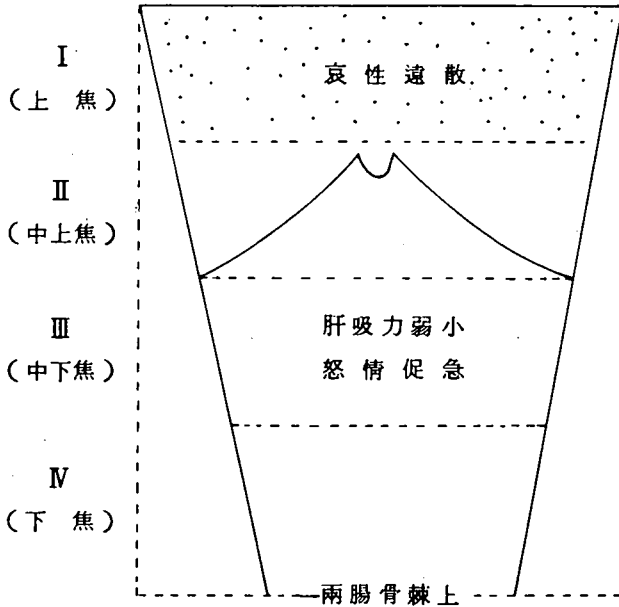
이와같이 東武는 怒情促急이 肝益削하게 만드는 理由를 三種으로 解釋하고 있다. 그러나 李<sup>12)</sup>는 此를 逆傷의 原理, 逆動의 原理를 들어 說明하면서 逆動의 原理中에서도 距離의 比例의 原理에 依한다 라고 說明하고 있다.

그러면 此를 圖示해 보고자 한다. 太陽人은 上焦에서 哀性(肺의 呼力)이 最大로 遠散하고 있으므로 (I)과 같이 形成되고, 中上焦에서 脾는 中正之臟이나, 上焦之氣가 盛하므로 (II)와 같이 形成되며, 中下焦에서는 少陽出 太陰而馮其母하는 關係로 促急된 怒情의 影響을 받아 氣激肝而肝益削하므로 (III)과 같이 形成되고 下焦의 腎은 正臟이기는 하나, 上焦之氣가 多한즉 下焦가 弱하다 라는 原理에 依하여 腎의 出力은 最弱하게 發顯되어 (IV)와 같이 形成된다. 따라서 圖表(가)와 같이 된다.

② 少陽人은, 橫升하는 怒性(脾의 納力)이 人의 四象中 脾即 胸腋, 背脊部位에서 宏抱할 때, 怒性(脾의 納內)은 栗而包하는 脾氣自體와 併合하여 中上焦脾에서 最大로 擴張되어 橫升하여 나가지만, 上焦肺는 中正之臟으로서 少陽人은 上盛하므로 下焦에 比하여 발달되었으나 그 세력은 太陽人보다는 弱하다. 哀情이 促急當하는 關係로 腎의 出力도 弱小하게 된다. 따라서 少陽之臟局이 成形於脾大腎小가 되는 것이다.

此를 圖示해 보면, 少陽人은 中上焦에서 怒性(脾의 納力)이 最大로 宏抱하고 있으므로 (II)와 같이 形成되고, 上焦의 肺는 中正之臟

兩肩胛骨及鎖骨下端部



圖表(가)

- 陽人이기 때문에 陽部位에 該當하는 上焦는 最大로 遠散된다.
- 心窩部와 兩肋骨連이 形成하는 角度가 少陽人보다는 넓다.
- 陽人이기 때문에 陰部位인 下焦에서는 深確作用이 最弱하다.

이나 陽人은 上盛하므로 (I)과 같이 形成되며, 中下焦의 肝은 正臟으로서 少陽出太陰爲馮其母하는 關係로 最大로 宏抱하는 怒性(脾의 納力)의 影響을 받아 (III)과 같이 形成되고, 下焦에서는 上焦之氣가 多한則 下焦가 弱한 原理에 依하여 (IV)와 같이 形成된다. 따라서 圖表(나)와 같이 된다.

③ 太陰人은 放降하는 喜性(肝의 吸力)이 人의 四象中 肝即腰脇 腰脊部位에서 廣張할 때에, 喜性(肝의 吸力)은 寬而緩하는 肝氣自體와 併合하여 中下焦의 腰脇脊部位에서 最大로 擴張된다.(喜性廣張則 氣注肝而 肝益削)

放降하는 喜性(肝의 吸力)이 下向할 때, 陷降하는 樂情(腎의 出力)이 促急당하여 腎의

出力이 弱化되면 少陰出太陽而奪其母하므로 肺의 呼力도 弱小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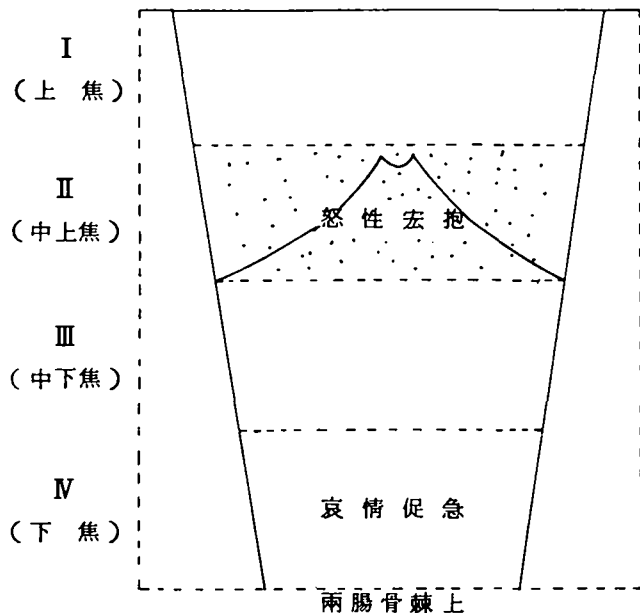
(樂情促急則 氣激肺而 肺益削)

따라서 太陰之臟局이 成形於 肝大肺小하게 된다.

此를 圖示해보면, 太陰人은 中下焦에서 喜性(肝의 吸力)이 最大로 廣張하고 있으므로 (III)과 같이 形成되고 下焦에서 腎은 中正之臟이나 陰人은 下實하므로 (IV)와 같이 되며 中上焦에서는 最大로 廣張하는 喜性의 影響을 받고 있으므로 (II)와 같이 되고 上焦에서는 樂情이 促急한 까닭에 (I)과 같이 形成된다. 따라서 圖表(다)와 같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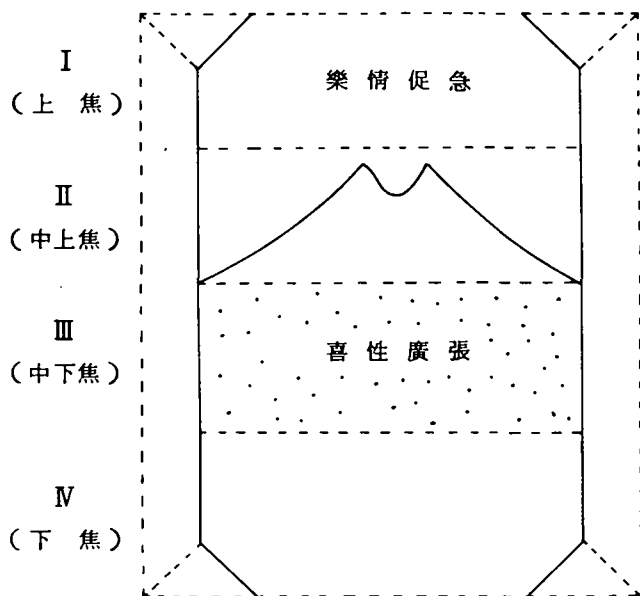
④ 少陰人은 陷降하는 樂性(腎의 出力)이

兩肩胛骨及鎖骨下端部上



圖表(나)

- 陽人으로 哀情이 促急당하므로 太陽人의 遠散之氣보다 弱化된다.
- 心窩部와 肋骨連이 形成하는 角度는 太陽人보다 좁다.
- 陽人이기 때문에 陰部位인 下焦에서 는 深確作用이 最弱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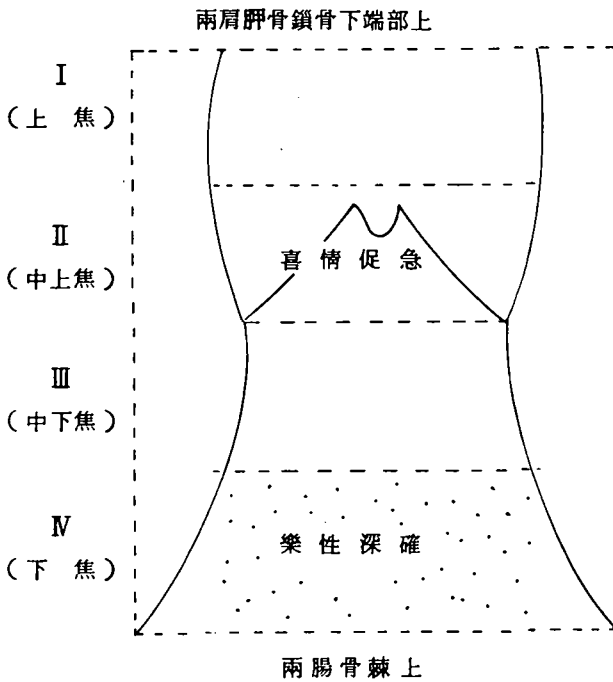
圖表(다)

- 陰人이기 때문에 陽部位에 해당하는 上焦는 遠散될 수가 없다.
- 陰人이기 때문에 陰部位에 해당하는 下焦는 深確될 수 있으나 太陰人의 경우는 樂情이 促急당하기 때문에 下焦가 深確될 수가 없다.
- 따라서 臀部·腰臍部·脇肋部·胸部 卽 上焦 中上焦 中下焦 下焦가 거의 비슷한 형태를 유지하게 된다.

人的 四象中 腎의 所住着處인 膀胱部位에서 溫而 畜하는 腎氣自體와 併合하여 最大로 擴張되어 陷降한다. (樂性深確則 氣注腎而 腎益盛) 陷降하는 樂性(腎의 出力)이 深確할때, 脾의 納力은 喜情(脾의 納力) 促急의 影響으로 弱小하게 된다. (喜情促急則 氣激脾而 脾益削) 따라서 少陰之臟局이 成形於 腎大脾小하게 된다. 此를 圖示해 보면, 少陰人은 下焦에서 樂性(腎의 出力)이 最大로 深確하므로 (IV)와 같

이 形成되고, 中下焦의 肝은 正臟이기는 하나 最大로 深確된 樂性(腎의 出力)이 陷降하여 上升之力이 弱한데다 喜情이 促急당하고 있으므로 (III)과 같이 形成되며 中上焦의 脾는 促急당하는 喜情의 影響을 받아 (II)와 같이 形成되고, 上焦에서는 下焦之氣多則上焦弱의 原理에 依하여 (I)과 같이 形成된다. 따라서 圖表(라)와 같이 된다.

以上에서 考察해본 結果, 四象人의 形態學的



圖表(라)

- 陰人이기 때문에 陽의 部位인 上焦에서 遠散之氣가 발달할 수 없다.
- 樂性의 上升之力이 弱한데다가 喜情이 促急當하므로 中上焦部位가 위축된다.
- 陰人이기 때문에 陰部位에 해당하는 下焦는 深確之氣가 最大로 發達한다.

圖式化가 可能했다.

此는 平面的인 形態學的 圖式化이다. 여기에 立體感을 附與하기 爲하여 東武는 다음과 같이 言及하고 있다.

太陽人의 體形氣像은

胸膺之起勢가 盛壯하고, 腰圍之立勢가 孤弱하다.

少陽人의 體形氣像은

胸襟之包勢가 盛壯하고 膀胱之坐勢가 孤弱하다.

太陰人の 體形氣像은

腰圍之立勢가 盛壯하고 腦頤之起勢가 孤弱하다.

少陰人の 體形氣像은

膀胱之坐勢가 盛壯하고 胸襟之包勢가 孤弱하다.(材料 14)

此는 東武가 創案한 原理로서 直接 人體를 目前에 두고 察했을때, 나타나는 立體的인 體形과 氣의 形象이다.

그러나 東武는 問題點 몇가지를 提示하고 있다.

첫째, 太陽人 女子가 體形壯實하고 肝小腸瘠하여 子宮이 不足한 故로 不能生産한다. 이것을 六畜으로써 玩理해 볼때, 太陽에 屬하는 牝牛馬가 體形壯實하지만 역시 生産을 못하는 것으로 보아 그 理致를 可히 推定할 수 있다.(材料 15)

라고 說했으나, 人體의 四象을 辨別할 目的으로 六畜의 理論까지 도입한다는 것은 크나큰 問題點이 있다고 思料된다.

둘째, 少陽人이 혹간 短小靜雅한 者가 있어 外形이 少陰人과 恰似한 者는 그 病勢寒熱을 觀하여 仔細히 執證해야 한다. 잘못 판단하여 少陽人에게 少陰人 治療를 誤作하는 것은 不可하다.

세째, 太陰人과 少陰人의 體形이 或은 略相彷彿하여 疑似點을 辨別하기가 難하니, 其病證을 觀한 즉 반드시 辨別할 수 있을 것이다.

(材料 17)

둘째 세째에서 說한 것은 少陽人과 少陰人의 恰似性, 太陰人과 少陰人의 疑似性이다. 이를 察하여 보면, 東武가 明明白白한 外形의 辨證理論을 提示해 놓고서도 四象辨別의 難解함을

說했다 함은 東武 自身이 創案한 전형적인 四象體質과 恰似 내지 疑似한 體質도 많이 있음을 示唆한 것으로 思料된다. 이 點에 對해서는 次後에 다시 研究·考察되어져야만 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不辨 誤作治하는 過誤를 犯하지 않기 위한 精確한 體質辨別의 重要性을 다음과 같이 訓戒하고 있다.

明知其入하고 또 明知其證한즉 藥物의 應用에 있어 반드시 可히 疑心할 바가 없을 것이다.(材料 18) 故로 人物形容을 仔細히 商量하여 再三推移하되 만일 迷惑한 點이 있는 則 病證을 參互하여 明見無疑한 然後라야 可히 服用藥할 수 있는 것이오. 輕忽한 것이 最 不可하다. 一貼藥을 重病險證에 誤投하면 誤投한 그 一貼藥이 必히 殺人한다.(材料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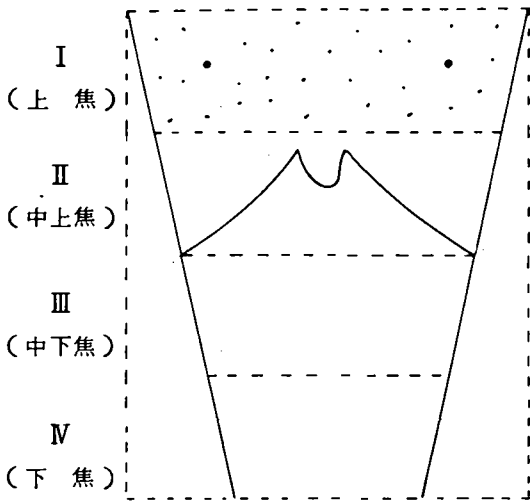
以上에서 考察한 것을 總括하여보면, 明知其人 한마디로 縮約할 수 있다. 明知其人하는 方法은 體形氣像을 中心으로 하는 外形의 體質辨別과 心性을 中心으로 하는 性情論的 體質辨別이 綜合되어야 完全하다고 본다.

이에 著者는 明知其人하는 方法中에서 體形氣像을 中心으로 하는 外形의 體質辨別의 形態學的 圖式化를 試圖해 본 것이다.

#### IV. 結 論

以上에서 東武가 提示한 原理를 中心으로 四象人의 體質辨別을 形態學的으로 考察한 結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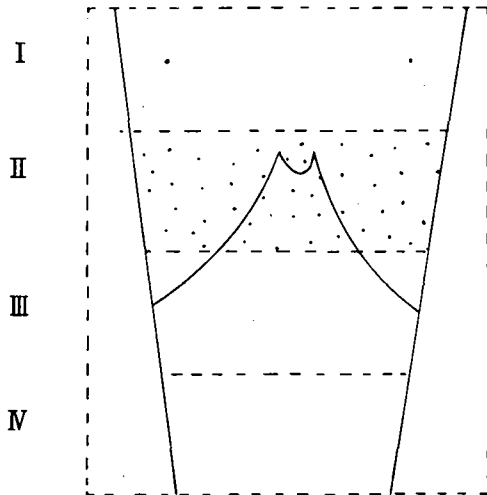




圖表(가)

1. 太陽人是 陽人이므로 上實下虛하여 圖表(가)와 같이 부채꼴의 형상을 유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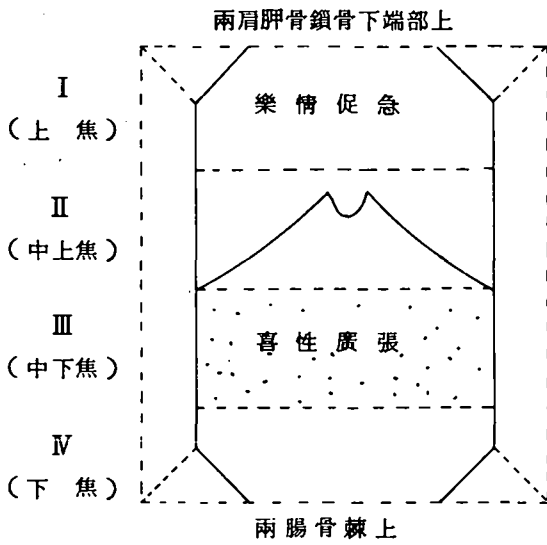
上焦에서 衰性(肺의 呼力)이 最大로 遠散하므로 (I)과 같고, (大胸筋이 最大로 발달) 中上焦에서는 怒情(肝의 吸力)이 促急당한 영향으로 (II)와 같고, 中下焦에서는 少陽出太陰하는 關係로 促急당한 脾의 納力이 肝의 吸力으로 위축되어 나타나므로 (III)과 같고, 下焦에서는 上焦之氣가 多則下焦弱의 原理와 太陽生少陰하는 關係 때문에 深確之氣가 最弱하므로 (IV)와 같다.



圖表(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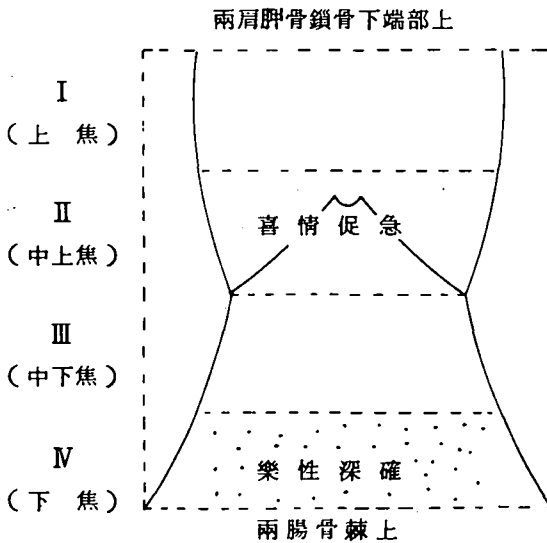
2. 少陽人是 陽人이므로 上實下虛하여 圖表(나)와 같은 부채꼴의 형상을 유지한다.

肺는 中正之臟이나 少陽人是 上盛하므로 비교적 발달된 편으로 太陽人보다는 위축되어 (I)과 같고, (大胸筋 自體가 太陽人보다 위축됨) 中上焦에서는 怒性(脾의 納力)이 最大로 宏抱하므로 (II)와 같으며, 中下焦에서는 少陽出太陰하는 關係로 最大로 宏抱하는 怒性(脾의 納力)의 영향을 받아 肝의 吸力이 위축되어 (III)과 같고, 下焦에서는 上焦之氣多則下焦虛한 原理와 促急당한 衰情의 영향을 받아 深確之氣가 最小로 되어 (IV)와 같다.



圖表(다)

3. 太陰人是 中下焦에서 喜性(肝의 吸力)이 最大로 廣張되고 있으므로 腹直筋이 발달하여 (III)과 같고, 下焦에서는 腎은 中正之臟으로서 陰人은 下實하나 深確作用이 相對的으로 위축되어 (IV)와 같이 된다. 中上焦에서는 太陰生少陽하므로 最大로 廣張된 喜性(肝의 吸力)의 영향을 中下焦로부터 받아 (II)와 같이 되며, 上焦에서는 少陰出太陽하는 관계로 促急당하는 樂情之氣의 영향을 받아 遠散之氣가 貧弱해 지므로 大胸筋이 위축되어 (I)과 같다.



圖表(라)

4. 少陰人是 下焦에서 樂性(腎의 出力)이 最大로 深確되어 나타나므로 (IV)와 같고, 中下焦에서는 喜情이 促急당하여 위축된 여과로 (III)과 같으며, 中上焦에서는 促急당한 喜情의 영향을 받아 脾의 納力도 弱화되므로 (II)와 같고 上焦에서는 少陰出太陽하고 下焦之氣多則上焦虛한 原理에 따라 遠散之氣가 위축되므로 (I)과 같이 된다.

## V. 參考文獻

1. 李炳幸：鍼道源流重磨(서울 杏林書院) 1974, p.347, 348.
2. 權英植：四象方藥合編(서울 杏林書院 1973), pp.37-42.
3. 朴爽彥：四象頭部觸診法(서울 醫林社 1982), pp.62-64.
4. 韓熙錫：火曜漢方·創刊號(1972), p.24-28.
5. 朴寅商：東醫四象要訣(서울 杏林書院 1974), pp.3-6.
6. 洪淳用：火曜漢方 三號(1973) p.7.
7. 權度沅：大韓 韓醫學會報 二十一號(1966) p.32, 33.
8. 韓東錫：東醫壽世保元註釋(서울 誠理會出版社 1967), p.31.
9. 前掲書 p.72.
10. 前掲書 pp.27-29.
11. 前掲書 p.74.
12. 李乙浩·洪淳用：四象醫學原論(서울 壽文社 1973), pp.46-47.